

The Judges – Sermon 4: Sermon notes

Sermon title: Deborah, a mighty woman in God's service

Scripture: Judges 4:1-9

Date preached: April 10th 2022

Scripture: Judges 4:1-9

1When Ehud was dead, the children of Israel again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2** So the LORD sold them into the hand of Jabin king of Canaan, who reigned in Hazor. The commander of his army *was* Sisera, who dwelt in Harosheth Hagoyim. **3** And the children of Israel cried out to the LORD; for Jabin had nine hundred chariots of iron, and for twenty years he had harshly oppressed the children of Israel.

4 Now Deborah, a prophetess, the wife of Lapidoth, was judging Israel at that time. **5** And she would sit under the palm tree of Deborah between Ramah and Bethel in the mountains of Ephraim. And the children of Israel came up to her for judgment. **6** Then she sent and called for Barak the son of Abinoam from Kedesh in Naphtali, and said to him, “Has not the LORD God of Israel commanded, ‘Go and deploy *troops* at Mount Tabor; take with you ten thousand men of the sons of Naphtali and of the sons of Zebulun; **7** and against you I will deploy Sisera, the commander of Jabin’s army, with his chariots and his multitude at the River Kishon; and I will deliver him into your hand’?”

8 And Barak said to her, “If you will go with me, then I will go; but if you will not go with me, I will not go!”

9 So she said, “I will surely go with you; nevertheless there will be no glory for you in the journey you are taking, for the LORD will sell Sisera into the hand of a woman.” Then Deborah arose and went with Barak to Kedesh.

1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2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총사령관은 하로셋 - 하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3 야빈은 철전차 900 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통치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4 그때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어. 5 에브라임 산간 지대, 라마와 벤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재판석을 마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송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녀에게 나아갔다. 6 어느 날 드보라가 납달리 땅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 10,000 명을 이끌고 다불산으로 가거라. 7 그러면 내가 철전차와 많은 군대를 거느린 야빈군의 총사령관 시스라를 기손 강가로 이끌어내어 네 손에 넘겨 주겠다.’”

8 그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9 그러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였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넘겨 주실 것이므로 당신은 가도 승리에 대한 영광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Review

Last time we examined judges 3 and 4; Ehud and Shamgar. Let us briefly review some of the key

things we looked at in the previous sermon. In Ehud's case the exact nature of the people's sins against God are not given. Whatever sin it was God was justly angry, and allowed King Eglon of Moab to conquer the land. He did this in a coalition with the Ammonites and the Amalekites. This oppression lasted for 18 years. The people again cry out for deliverance and the judge God raised up was Ehud. He is described as a left handed man, which probably indicates a physical disability. In other words he represented an unlikely hero. He travels to Jericho and assassinates King Eglon. Following the assassination he leads the people to rout the army of their oppressors and win their freedom. He brings peace to Israel for 80 years.

The next judge, Shamgar is often referred to as a "minor judge." This is not a reflection of his importance, or impact but is simply based on the scant information we are given about him. In Shamgar's case his story is told in just one verse. This means that we have little detail about him personally or his life as a judge. We do know that his name means "sword" and that his father was Anath. Again as with Ehud we do not know what sins the people committed to rouse God's anger. Whatever they were, God permitted the Philistines to be their oppressors. Shamgar armed with his trusty ox goad, a farm implement, kills 600 enemy soldiers and brings peace to Israel.

Today we are going to look at judge number four; Deborah. Before we look at her fascinating story in more detail let's place her information into the cycle of sin.

Once again the precise nature of the people's sins are not mentioned. Their oppressor on this occasion is King Jabin of the Canaanites. Another key figure in the story is one of Jabin's leading commanders called Sisera. They would oppress the children of Israel for 20 years. At the end of this time period the people cry out for God's deliverance. On this occasion he raises up Deborah. She will encourage the military leader Barak to act and peace is eventually restored to the land. Deborah would judge for 40 years.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let us pray.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판사 3 과 4 를 조사했습니다. 에훗과 삼갈. 이전 설교에서 살펴본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훗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정확한 성격이 나와 있지 않다. 죄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연합하여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억압은 18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백성은 다시 구원을 외치며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사는 에훗이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로 묘사되는데, 이는 아마도 신체적 장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의외의 영웅을 대표했습니다. 그는 여리고로 가서 에글론 왕을 암살합니다. 암살 이후 그는 압제자들의 군대를 무찌르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는 80 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판사인 Shamgar 는 종종 "소판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중요성이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그에 대해 제공하는 부족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Shamgar 의 경우 그의 이야기는 단 한 구절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개인적 또는 판사로서의 그의 삶에 대해 거의 세부 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 "검"을 의미하고 그의 아버지가 Anath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에훗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위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Shamgar 는 그의 믿음직한 소 막대기로 무장한 농기구로 적군 600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는 4 번 판사를 볼 것입니다. 데보라. 그녀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그녀의 정보를 죄의 순환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람들의 죄의 정확한 본질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그들의 압제자는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입니다.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시스라라는 야빈의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그들은 20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할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이때 그는 드보라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군사 지도자 Barak 이 행동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마침내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드보라는 40 년 동안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기도합시다.

1When Ehud was dead, the children of Israel again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2 So the LORD sold them into the hand of Jabin king of Canaan, who reigned in Hazor. The commander of his army was Sisera, who dwelt in Harosheth Hagoyim.

Deborah's story begins with a repeat of the familiar pattern of the people falling away from God. We can point anyone who thinks human beings are essentially good to the book of judges.

Here were people who in many cases had first-hand experience of God's involvement in their lives and still they continually fell into sin. The pattern sadly is repeated in our own lives. We are good and faithful for a while, before we stumble and need to seek forgiveness from, and restoration with God.

Whilst the judge Ehud lived the people remained faithful, but once he died the people fell into their old bad habits. We are not told what the precise sin the people committed, but we can infer from God's response that it angered Him greatly and required His corrective intervention.

This time the people's oppressor is King Jabin of the Canaanites. The previous oppressors had come from outside the promised land. This time God used a ruler who dwelt within Canaan. As I said in the introduction to this study the conquest of Canaan had not resulted in all the previous inhabitants being removed. Jabin had his political headquarters in Hazor. This impressive Canaanite city had been destroyed by Joshua (Joshua 11:11) during the initial conquest period. The reference here to Hazor is to the rebuilt city. It was a strategically important city because it was located along the main highway connecting Egypt and Mesopotamia. We are also here told about Jabin's commander in chief, his right hand man. His name was Sisera, and he based himself a few miles south-west of Hazor in Harosheth Hagoyim.

드보라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익숙한 패턴의 반복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판단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심을 직접 경험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그 패턴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해야 하기 전에 잠시 동안 선하고 충실합니다. 사사 에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충실했지만 그가 죽고 나면 백성들은 그들의 옛 나쁜 습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백성이 지은 정확한 죄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크게 화나게 했고 그의 시정 개입이 필요했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성을 압제하는 자가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입니다. 이전의 압제자들은 약속의 땅 밖에서 왔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거하는 통치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이 연구의 서문에서 말했듯이 가나안 정복은 이전의 모든 거주자들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 다. Jabin 은 Hazor 에 그의 정치 본부가 있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가나안 도시는 초기 정복 기간 동안 여호수아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수 11:11). 여기서 하술에 대한 언급은 재건된 도시를 가리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따라 위치해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에서 Jabin 의 총사령관이자 그의 오른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스라였으며, 그는 하

술에서 남서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하로셋 하고임에 거주했습니다.

3 And the children of Israel cried out to the LORD; for Jabin had nine hundred chariots of iron, and for twenty years he had harshly oppressed the children of Israel.

Jabin oppressed the people of Israel harshly for a period of 20 years. Part of the reason why he could successfully subjugate the people was because of his military might. He possessed 900 iron chariots. These were the most advanced military development at the time. We might imagine it today as tanks or armoured vehicles going against lightly armoured infantry. 900 chariots is a huge number in the ancient world. Only the best equipped and maintained armies would have this number of chariots. This was because it required a great deal of manpower and background support to keep a squadron of chariots in the field. The expense however was probably worth it. An army that had this number of chariots would be virtually assured of victory on any flat terrain. Again however God would use these circumstances to teach His people something important. It was this, that those on His side would never lose no matter the odds against them. Let's see who he provides as a deliverer.

야빈은 20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압제했습니다. 그가 백성을 성공적으로 토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의 군사력 때문이었다. 그는 900 개의 철제 병거를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장 발전된 군사 개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장갑 보병을 상대 하는 탱크나 장갑차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900 병거는 고대 세계에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유지 관리되는 군대만이 이 수의 병거를 보유할 것입니다. 야전에서 전차 중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배경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용은 아마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의 병거를 보유한 군대는 거의 모든 평평한 지형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분의 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역경에도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구원자로서 누구를 제공하는지 봅시다.

4 Now Deborah, a prophetess, the wife of Lapidoth, was judging Israel at that time. 5 And she would sit under the palm tree of Deborah between Ramah and Bethel in the mountains of Ephraim. And the children of Israel came up to her for judgment.

We are introduced here to Deborah. In Hebrew her name is pronounced De-V-orah and it means “bee.” As we will see she certainly packs quite a sting! She is described here as being **the wife of Lapidoth**. Now in Hebrew the word for “woman” and “wife” is the same it is the word *ishshâh*. So it might mean she is the wife of a man called Lapidoth, or that she is a woman from a place called Lapidoth. She is described here as both a prophetess and a judge. She is one of just four prophetesses mentioned by name in the Old Testament. The other three are Miriam (Exod. 15:20), Huldah (2 Kings 22:14) and Noadiah (Nehemiah 6:14). Typically, we think of prophets as having future predictive gifts. We assume that God is giving them some insight into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This is sometimes, but not always the case. Therefore we should also think of a prophet as being someone who speaks for God. This is definitely the case for all of the judges. We also should note that she is only female judge.

After her Israel would have to wait until 1969 for its next female leader in Golda Meir.

When we are introduced to her here we learn that she was already serving as a judge. As I said back in the introduction to this series judges functioned in a number of ways. They might be loosely defined as fulfilling the roles of military generals, magistrates, judges and a local sheriff. Many were mighty military leaders who led the people into conflict. Some however served more as

civil leaders. This seems to have been the case for Deborah. She was acting in the way that we think of a judge today. People came to her with legal matters, and she imparted her wisdom and passed rulings on their cases. Her “court” held session under a palm tree between Ramah and Bethel.

여기 Deborah 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녀의 이름은 De-V-orah 로 발음되며 "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녀는 확실히 쏘는 것을 포장합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라피도트의 아내로 묘사됩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 "여자"와 "아내"에 대한 세계는 동일하며 단어 ishshâh 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라피도트라는 남자의 아내이거나 라피도트라는 곳의 여자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여선지자이자 재판관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구약에 이름이 언급된 네 명의 여예언자 중 한 명입니다. 다른 세 사람은 미리암(출 15:20), 홀다(왕하 22:14), 노아다(느헤미야 6:14)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지자를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선지자를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심사위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녀가 유일한 여성 판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골다 메이어에서 차기 여성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1969 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를 소개받았을 때 그녀는 이미 판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리즈의 소개에서 다시 말했듯이 심사위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들은 군 장성, 치안 판사, 판사 및 지역 보안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느슨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갈등으로 이끈 강력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시민 지도자로 더 많이 봉사했습니다. 이것은 Deborah 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우리가 판사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녀에게 왔고 그녀는 지혜를 전하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궁정”은 라마와 베텔 사이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6 Then she sent and called for Barak the son of Abinoam from Kedesh in Naphtali, and said to him, “Has not the LORD God of Israel commanded, ‘Go and deploy troops at Mount Tabor; take with you ten thousand men of the sons of Naphtali and of the sons of Zebulun; 7 and against you I will deploy Sisera, the commander of Jabin’s army, with his chariots and his multitude at the River Kishon; and I will deliver him into your hand’?”

We are introduced here to Barak the son of Abinoam. The name Barak means “lightening.” It appears that he was a well known general or commander of the military forces. Deborah summons him to reveal a divine command from God. The message she gives him is that God has chosen Barak to deliver Israel through military conflict. The way it is phrased here suggests that Barak had already received this message. So what we may be reading here is Deborah confirming a message that God had already given to Barak. Perhaps Barak was unclear before, but now he can have no doubt about what God is commanding him to do. Basically he is to take a force of 10,000 men to Mount Tabor. His forces are to be made up from the tribes of Naphtali and Zebulun. They are then to wait at Tabor for God to draw Sisera and his men to the River Kishon. It is at this point that Barak and his forces are to strike. Let's see how Barak responds.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소개합니다. 바락이라는 이름은 “번개”를 의미합니다. 그는 잘 알려진 군대의 장군 또는 지휘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드보라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을 계시하도록 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바락을 선택하여 군사적 갈등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방식은 바락이 이미 이 메시지를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드보

라가 하나님께서 이미 바락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락이 불분명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일에 대해 의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10,000 명의 병력을 다볼 산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의 군대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볼에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부하들을 기손 강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락과 그의 군대가 공격해야 합니다. 바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8 And Barak said to her, “If you will go with me, then I will go; but if you will not go with me, I will not go!”

This verse is a great example of the bible telling us what was said, but not how it was said. What I mean is this, to understand what Barak means here we really need to know his tone. Was what he said here expressed in a way that showed he was cowardly or afraid. Was he in effect saying, “I’m too scared to go without you.” Or was he positively endorsing God’s divinely appointed judge. Was he saying, “Since you are the one God has chosen, and through whom God speaks I need you with me to guide my hand.” We simply don’t know. But whatever the case he put a condition on obeying God. I’m sure you don’t need me to tell you that’s not a good thing. God had promised him victory but Barak refused to obey unless Deborah went with him. Barak is often looked upon as being weak and cowardly. Often the narrative is that Deborah had to take the lead because Barak was not man enough. But let me remind you that other great men in the bible also expressed reluctance to obey God. Moses, Gideon and Jeremiah are good examples. Also we should not forget that Barak is listed amongst the heroes of faith in the book of Hebrews (11:32). Let’s see how Deborah responds.

이 구절은 성경이 무엇을 말했는지 알려주는 훌륭한 예이지만 어떻게 말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말은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바락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그의 어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그가 겁쟁이이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나는 당신 없이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는 하느님께서 임명하신 재판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니 당신이 나와 함께 내 손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좋지 않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락은 종종 약하고 겁쟁이로 여겨집니다. 종종 이야기는 바락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드보라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모세, 기드온, 예레미야가 좋은 예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락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히브리서 11:32)에 포함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Deborah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9 So she said, “I will surely go with you; nevertheless there will be no glory for you in the journey you are taking, for the LORD will sell Sisera into the hand of a woman.” Then Deborah arose and went with Barak to Kadesh.

There are consequences related to what Barak has demanded. Deborah agrees to go with him but his lack of trust or faith will mean he will not get the full glory for the coming victory. Naturally as the commander of the army he would receive some acclaim, but not all of it. He would get the credit for defeating the Cannanites but a woman would get the honour of defeating their

leader Sisera.

Time will not permit me to tell you what happens next in great detail. I encourage you to read the rest of chapter 4 for yourselves. Let me briefly summarise it here. The battle is a great success. Sisera's forces are routed and he escapes on foot. He decides to hide up in the tent of the friendly Kenite tribe. Here we meet another interesting woman. Her name is Jael which means "wild mountain goat." She makes Sisera welcome. Gives him some milk and covers him with a blanket. However whilst he is sleeping Jael creeps up and drives a tent peg through his skull. When Barak arrives looking for Sisera, Jael shows him what she has done. As predicted the honor of killing the enemy leader goes not to Barak but to a woman; Jael. From this time on King Jabin's power and influence began to diminish. Eventually he was destroyed and peace was restored to Israel for 40 years.

바라키가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결과가 있습니다. Deborah 는 그와 함께 가기로 동의하지만 그의 신뢰나 믿음이 부족하여 다가오는 승리에 대한 완전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약간의 찬사를 받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가나안 족속을 무찌른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여자는 그들의 지도자 시스라를 무찌른 영예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아주 자세히 말할 수 없습니다. 4 장의 나머지 부분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전투는 대성공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패주했고 그는 도보로 탈출합니다. 그는 우호적인 켄 부족의 천막에 숨어 있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여성을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엘(야엘)인데 이는 "야생 산염소"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시스라를 환영합니다. 그에게 우유를 주고 담요로 덮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고 있는 동안 Jael 은 다가와 그의 두개골에 텐트 못을 박습니다. 바라키가 시스라를 찾으러 도착했을 때 야엘은 그녀가 한 일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예상대로 적의 지도자를 죽이는 영예는 바라키가 아니라 여자에게 돌아간다. 야엘. 이 때부터 야빈왕의 권세와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멸망당하고 40 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Deborah

There are many things we can learn from a study of Deborah. She really is a remarkable biblical figure. The only female judge and one of only a handful of female prophets mentioned by name in the bible. She was a woman of great courage and conviction. She not only told Barak what God had said but also went with him to the battle. We don't know if she actually took part in the battle itself, but she was certainly present. This demonstrates her great faith that God would do what He had said He would do. She had no doubt that with God on their side they would be victorious.

Also we should make some comment about the fact that she was a woman. She lived in patriarchal times. A time in which the woman's place was in the home. It was highly unusual, in fact it was unique that a woman would have this position of power and authority. It shows us what an amazing person she must have been. Finally, we must consider her role as a judge. To sit in judgement is never an easy thing. Especially for a woman in that culture. But Deborah must have been greatly admired and respected. People came to have their legal issues judged and resolved by her. They trusted her judgement because she spoke God's truth.

드보라의 연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놀라운 성경적 인물입니다.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자 성서에 이름이 언급된 몇 안 되는 여성 예언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큰 용기와 확신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키에게 전했다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전투 자체에 참여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분명히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는 그녀의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시면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녀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약간의 논평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족장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자의 자리가 집이었던 시대. 여성이 이러한 권력과 권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판사로서의 그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관에 앉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문화의 여성에게는. 그러나 드보라는 많은 존경과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법적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녀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hree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나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논평을 할 것이 있습니다.

1 Trust in God's Word

Deborah trusted in the word of God. She understood that God alone is able to do what he says he will do. So when God said that Barak and Israel would defeat the Canaanite army, Deborah believed God. She did not need to have her trust in God confirmed by the responses of others. We too must trust in God and His Word.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만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락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군대를 물리칠 것이라고 하셨을 때 드보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2 Don't lose sight of God's divine order

Even though Deborah occupied a position of authority and power she never lost sight of God's divine order for men and women. It is God's design that men and women have differing responsibilities and fulfil different roles. Deborah called upon Barak to accept what God wanted him to do. She even cautioned him of what his failure to do so would bring. We too have been given roles and responsibilities. God expects us to be faithful and to fully support His divine order. So in the home this means wives encourage and support your husbands. Help them to be the men God wants them to be. For husbands, it means loving, nurturing and guiding your wife. So she too can be all that God wants.

드보라는 권위와 권세의 위치를 차지했지만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책임을 맡고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에게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실하고 그분의 신성한 질서를 온전히 지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고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남편에게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3 Be courageous

Deborah models for us true courage. She believed God's Words and stood firmly upon them.

Even though others around her were not showing great courage she never wavered. For us too there are times when we need to be courageous.

We need to encourage others who may have doubts or may worry that God had abandoned them.

Let us be courageous knowing that God's Words are true, and He will never fail to deliver on His promises.

Deborah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큰 용기를 내지 않아도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며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임을 아는 용기를 가지도록 합시다.